



**시대를 눈썹 트렌드**  
눈썹 디자인은 곧 여성들의 변화다. 세기를 넘어 달라진 눈썹의 히스토리를 정리했다.

**1920년대 그렌지 가발**  
조각 같은 완벽함과 차가운 관능기가 느껴지는 1920년대의 유행어라 불리는 눈썹을 담을 정도로 가늘고 길게 그렸다.

**1940년대 로빈슨 브라운**  
제2차 세계대전으로 화장품 사용이 줄었던 시기 이후 안개 굽고 각진 눈썹을 선호했고, 영국 여성들은 구두목으로 눈썹을 그리기도 했다.

**1950년대 오드비 벨**  
고전 발레에서 통용한 메이크업으로 일부분은 두껍고 뒤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도톰한 일자 눈썹이 인기를 끌었다.

**1960년대 제롬인 코넬리**  
우아하고 귀족적인 기풍은 60년대 여성들의 상징 대상이었다. 완벽함보다는 관리된 것 같지 않은 강렬한 야채형 눈썹이 그라비아 트레이드마크.

**1970년대 데이비드 보비**  
꽃이 피고 가늘어졌으며, 남성들도 속입계를 사용했다. 극단적으로 아예 밀어버리는 과감한 디스크 시대의 눈썹.

**1980년대 브룩 싱크**  
브룩 싱크가 자연스러운 눈썹을 유행시키며 솔이 없고 굽은 눈썹을 매력적으로 여겼다. 그 당시 아이론 머드나 데이 무어 역시 손을 전혀 대지 않은 눈썹으로 활동했다.

**1990년대 고소영**  
잔털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고 같이 살아 있는 눈썹, 스티크 코르페르, 고소영 등 국내를 먹여주고 하나같이 '갈매기' 눈썹에 심취했던 시기.

**2000년대 전지민**  
진지한, 이경애처럼 알고 깨닫힌 이미지와 어깨우들이 안겨왔던 만큼 타고난 그대로의 정원을 살린 자연스러운 눈썹이 사랑받았다.

**2010년대 아이유**  
간이저서한 귀엽고 순한 인상을 만들어주는 일자 눈썹, 얼굴을 활게 만들어 '꽃인' 유행에 한몫했다.

**2020년대 김백희**  
단지 길이를 채우는 것이 아닌, 입체적인 눈썹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. 한 한을 청신시켜 눈썹 활을 살린 것이 포인트.

에디터가 한눈에 반한 나나의 메이크업. 올창한 숲의 빼어난 나무들처럼 같이 살아 있는 눈썹과 정리되지 않은 잔털이 볼수록 매력적이다. @nikki\_makeup

1 비오디, 연태홍, 캄파리드가 통용한 처진 주름들과 배워진, 향안화 선명이 눈썹의 아름다움. RevitaBrow는 눈썹 정돈을 돕고, 레이어업으로 유익한 케어, 비오디, RevitaBrow, 2 눈썹 고집과 RevitaBrow는 눈썹 정돈을 돕고, 레이어업으로 유익한 케어, 비오디, RevitaBrow, 3 비오디, 연태홍, 캄파리드가 통용한 처진 주름들과 배워진, 향안화 선명이 눈썹의 아름다움. RevitaBrow는 눈썹 정돈을 돕고, 레이어업으로 유익한 케어, 비오디, RevitaBrow, 4 비오디, 연태홍, 캄파리드가 통용한 처진 주름들과 배워진, 향안화 선명이 눈썹의 아름다움. RevitaBrow는 눈썹 정돈을 돕고, 레이어업으로 유익한 케어, 비오디, RevitaBrow, 5 비오디, 연태홍, 캄파리드가 통용한 처진 주름들과 배워진, 향안화 선명이 눈썹의 아름다움. RevitaBrow는 눈썹 정돈을 돕고, 레이어업으로 유익한 케어, 비오디, RevitaBrow.